

## 東方의 빛이여! 그대 이름은 코리아

宋相現 (서울대 법대 교수)

일찍이 아시아의 황금시기에  
빛나던 등불의 하나인 코리아,  
그 등불이 다시 한 번 켜지는 날에는  
그대는 동방의 밝은 빛이 되리라....

이 詩는 우리나라가 역사상 가장 암울했던 일제식민지시대에 인도의 시성(詩聖) 라빈드라나트 타고르가 1929년 봄 일제의 압제와 착취에 신음하던 우리 국민에게 동아일보를 통하여 전해준 격려의 시구(詩句)이다.

최근 몇 년 간 우리는 참으로 엄청난 국내외적 변화와 기복을 경험하고 있다. 20여 년간 한덩어리로 피땀흘려 노력한 결과 국가경제규모는 무럭무럭 자라는 어린 아이와 같이 성장에 성장을 거듭하였고, 개인 소득도 세계의 주목을 끌만큼 향상되었다. 돌이켜보면 공장에서 들판에서 구슬땀을 흘렸고, 베트남(월남)의 전쟁터에서, 열사(熱砂)의 나라 중동에서, 폭풍도 험한 北洋에서, 아프리카의 오지에서 밤낮없이 잘살겠다는 집념을 불태운 결과 귀하게 얻어진 결실을 우리는 즐겨왔다. 분배적 정의를 실천하기 위한 국민적 노력이 좀더 필요한 것은 두말할 필요도 없으나, 만성적 인플레이션을 어느 정도 통제할 수 있었고, 단군 할아버지 이래 무역흑자를 올렸다고 뿌듯한 마음으로 온 국민이 기뻐하기도 하였다. 또한 국제적으로도 급변하는 세계의 정치적 경제적 여건의 변화에 따라 무너지는 철의 장막을 뛰어넘어 우리의 立地를 넓혔고, 올림픽을 성공적으로 개최하였는가 하면 유엔에 가입하여 국제사회의 중요한 일원으로서 능동적으로 참여하고 있다.

무엇보다도 근 50년간 끙끙 얼어붙었던 동토지대(凍土地帶)인 북한과도 같이 부둥켜안고 민족대화합의 서사시를 합창할 날을 기대할 수 있게 되었으니 이 또한 감격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 다른 한편으로 아직 부족하고 미숙한 점이 많지만 1987년의 6.29선언 이래 정치적으로도 조금씩 민주화의 길을 걷고 있다고 하겠다. 참으로 한국은 타고르가 60여 년 전에 읊은 대로 등불을 다시 켜서 전세계를 밝게 비추게 되었다.

그러나 돌이켜보면 땀흘려 이룩한 경제성장과 기회를 잘 포착하여 이룩한 국제관계개선을 토대로 민주화의 길을 걸어온 지난 수년간이 우리에게서 너무도 험난한 시련과 값비싼 시행착오의 기간이었음을 부인할 수 없다.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염치없이 먹고 마시고 세계각지를 물려다니고 놀면서 순식간에 밖으로는 외국인들의 손가락질과 비난을 받고 안으로는 생산공장의 기계를 녹슬게 만들어 버렸다. 폭력으로 얼룩진 빈번한 노동쟁의는 기업인의 사업의욕을 상실하게 하고 수출경쟁력에서 패배를 자초하였으며 늘어나는 것은 실업자수와 적자